

December 2014

vol.173

어두운 곳을 밝혀주는 빛과 같은 존재

# 손으로 보는 세상



서울특별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점자로 말해요

12월 25일은 모두가 기다리는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는 인사말로 흔히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데요. 메리 크리스마스는 점자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는 점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 점 자 일 램 표



읽기형 ① ④  
② ⑤  
③ ⑥

|       |               |             |               |             |                    |             |                |             |               |             |               |             |                |             |                    |
|-------|---------------|-------------|---------------|-------------|--------------------|-------------|----------------|-------------|---------------|-------------|---------------|-------------|----------------|-------------|--------------------|
| 자음    | ㄱ<br>ㅇ<br>ㅇ   | ㄴ<br>●<br>ㅇ | ㄷ<br>ㅇ<br>ㅇ   | ㄹ<br>ㅇ<br>ㅇ | ㅁ<br>ㅇ<br>ㅇ        | ㅂ<br>ㅇ<br>ㅇ | ㅅ<br>ㅇ<br>ㅇ    | ㅇ<br>●<br>● | ㅈ<br>ㅇ<br>ㅇ   | ㅊ<br>ㅇ<br>ㅇ | ㅋ<br>●<br>ㅇ   | ㅌ<br>●<br>ㅇ | ㅍ<br>●<br>ㅇ    | ㅎ<br>●<br>ㅇ | 원소리<br>ㅇ<br>ㅇ<br>● |
| 받침    | ㄱ<br>●<br>ㅇ   | ㄴ<br>●<br>ㅇ | ㄷ<br>ㅇ<br>●   | ㄹ<br>●<br>ㅇ | ㅁ<br>●<br>●        | ㅂ<br>●<br>ㅇ | ㅅ<br>●<br>ㅇ    | ㅇ<br>●<br>● | ㅈ<br>●<br>ㅇ   | ㅊ<br>●<br>ㅇ | ㅋ<br>●<br>●   | ㅌ<br>●<br>● | ㅍ<br>●<br>●    | ㅎ<br>●<br>● |                    |
| 모음    | ㅏ<br>●<br>ㅇ   | ㅑ<br>●<br>ㅇ | ㅓ<br>●<br>ㅇ   | ㅕ<br>●<br>ㅇ | ㅗ<br>●<br>●        | ㅛ<br>●<br>● | ㅜ<br>●<br>●    | ㅠ<br>●<br>● | ㅡ<br>●<br>●   | ㅣ<br>●<br>● |               |             |                |             |                    |
|       | ㅐ<br>●<br>●   | ㅒ<br>○<br>● | ㅖ<br>●<br>●   | ㅙ<br>●<br>● | ㅚ<br>●<br>●        | ㅜ<br>●<br>● | ㅠ<br>○<br>●    | ㅝ<br>●<br>● | ㅞ<br>●<br>●   | ㅟ<br>●<br>● | ㅠ<br>●<br>○   |             | ㅡ<br>●<br>○    | ㅢ<br>●<br>○ | ㅣ<br>●<br>●        |
| 약자    | 가<br>●<br>●   | 나<br>●<br>ㅇ | 다<br>●<br>ㅇ   | 마<br>●<br>ㅇ | 바<br>●<br>ㅇ        | 사<br>●<br>● | 자<br>●<br>ㅇ    | 카<br>●<br>● | 타<br>●<br>ㅇ   | 파<br>●<br>ㅇ | 하<br>●<br>ㅇ   | 억<br>●<br>● | 언<br>●<br>●    | 얼<br>●<br>● | 연<br>●<br>●        |
|       | 열<br>●<br>●   | 영<br>●<br>● | 옥<br>●<br>●   | 온<br>●<br>● | 웅<br>●<br>●        | 운<br>●<br>○ | 울<br>●<br>●    | 은<br>●<br>● | 을<br>●<br>●   | 인<br>●<br>● | 것<br>○<br>●   |             | 쓰받침<br>●<br>●  |             |                    |
| 약어    | 그래서<br>●<br>● |             | 그러나<br>●<br>● |             | 그러면<br>●<br>●      |             | 그러므로<br>●<br>● |             | 그런데<br>●<br>● |             | 그리고<br>●<br>● |             | 그리하여<br>●<br>● |             |                    |
| 숫자    | 수표<br>●<br>●  | 1<br>●<br>ㅇ | 2<br>●<br>ㅇ   | 3<br>●<br>ㅇ | 4<br>●<br>ㅇ        | 5<br>●<br>ㅇ | 6<br>●<br>ㅇ    | 7<br>●<br>ㅇ | 8<br>●<br>ㅇ   | 9<br>●<br>ㅇ | 0<br>●<br>ㅇ   |             |                |             |                    |
| 문장 부호 | .<br>●<br>●   | ?<br>●<br>● | !<br>●<br>●   | ,<br>●<br>● | -<br>●<br>●        | ~<br>○<br>● |                | "<br>●<br>● |               | "<br>●<br>● |               | "<br>○<br>● |                | "<br>○<br>● |                    |
|       | :<br>○<br>○   |             | :<br>○<br>●   |             | 출입표(...)<br>○<br>○ |             |                |             |               |             |               |             |                |             |                    |
| 영어    | a<br>○<br>○   | b<br>●<br>○ | c<br>○<br>○   | d<br>●<br>○ | e<br>○<br>○        | f<br>●<br>○ | g<br>●<br>●    | h<br>●<br>○ | i<br>○<br>○   | j<br>○<br>○ | k<br>●<br>○   | l<br>●<br>○ | m<br>○<br>○    | n<br>●<br>○ |                    |
|       | o<br>●<br>○   | p<br>●<br>○ | q<br>●<br>○   | r<br>●<br>○ | s<br>○<br>○        | t<br>○<br>○ | u<br>○<br>○    | v<br>●<br>○ | w<br>○<br>○   | x<br>●<br>○ | y<br>○<br>○   | z<br>○<br>○ | 영어시작<br>○<br>○ | 끝<br>○<br>○ |                    |

‘나, 다, 마, 바, 사, 카, 타, 파, 하’ 약자 뒤에 모음이 이어질 때는 약자를 사용하지 않는다.

ㅅ, ㅈ, ㅊ, ㅛ, ㅜ, ㅠ 다음에 약자 영 이 올때는 ‘영’으로 바뀐다.

# C O N T E N T S



**점자로 말해요** | 메리 크리스마스 ..... 02

**테마기획** | 시각장애인 지하철 추락사고, 더 이상은 안 됩니다! ..... 04

**우리복지관에서는** | 시각장애인의 손쉬운 금융거래를 위한 한 걸음  
음성 OTP! ..... 06

**뉴스앨범** | 음악치료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열린 음악회 &  
자원봉사자, 시각장애인 취업자를 위한 송년회 열려 ..... 08

**함께 사는 이야기** | 자라섬 여행기 / 서해웅(시각장애1급, 서울시 은평구) ..... 09

**인터뷰** | 음악으로 마음을 따뜻하게 해드립니다! / 음악치료사 박경순 ..... 10

**흰 지팡이 발자취** | 점자교과서는 언제부터 만들어졌을까 ..... 12

**포커스** | 세계시각장애인연합회 아시아태평양지역 총회 ..... 14

2014 12  
vol. 173



손으로보는세상 제20권 12호 통권 173호

발행일 2014년 12월 15일 발행처 서울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주 소 우)139-831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 70가길 98 전 화 02-950-0107 팩 스 02-934-8069 이메일 kbuhongbo@hanmail.net

홈페이지 www.nowonblind.or.kr 한글도메인 '시각장애인.kr',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kr' 디자인·제작 디코리아(02-542-5064)

# 시각장애인 지하철 추락사고,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지난 9월 20일 서울 용산역 4번 승강장에서 1급 시각장애인 최 모 씨가 선로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용산역 4번 승강장은 용산행 급행열차가 정거하는 곳으로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지 않았는데요. 최 모 씨는 추락한 후 3분 동안 선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역으로 들어오는 급행 전동차에 치어 뇌출혈, 두피열상, 흉추골절 등 전치 32주의 부상을 입었으며 하반신 마비에 이르렀습니다. 최 모 씨는 부상 이후 현재까지 약 2600만 원의 병원 치료비가 들었으나 코레일은 배상에 관한 협의를 시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 또 다시 추락사고가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모든 전철 승강장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

중상을 입은 시각장애인 최 모 씨가 지난 11월 19일 코레일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차별구제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고소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관련 단체들은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최 모 씨의 어머니는 “오늘 아침에 걸을 수 없다는 생각에 울고 있는 아들을 보고 나왔다. 이런 상황에도 코레일은 지불보장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울지 전혀 언급이 없다”고 호소했으며 소송을 대리하는 공익인권법재단의 김수영 변호사는 사고 장소의 점자블록의 잘못된 설치, CCTV 사각지대 감시 소홀, 스크린도어 미설치, 안전요원 미비 등으로 사고가 일어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시각장애인 추락 사고는 하루 이틀사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2조 1항 ‘이동편의 시설의 구조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르면 승강장에는 스크린도어 또는 펜스 등을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스크린도어와 펜스 중 하나만 설치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사고의 경찰 수사에서도 철도공사 측의 과실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것이죠.

앞으로 또다시 추락사고가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모든 전철 승강장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고로 큰 부상을 입은 최 모 씨의 상황이 나아지기를, 더 나아가 이러한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 시각장애인의 손쉬운 금융거래를 위한 한 걸음! 음성 OTP!



시각장애인의 원활한 금융거래를 위해 음성 OTP가 제작되어 배포됐습니다. 국내 6개 은행(우리은행 · 신한은행 · 국민은행 · 하나은행 · 씨티은행 · 기업은행)과 우정사업본부가 11월 19일부터 시각장애인용 음성 OTP 2,000개를 제공했는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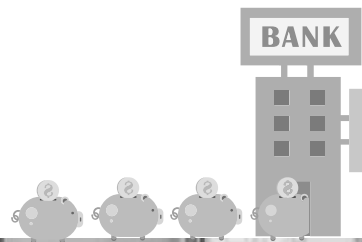
OTP는 One Time Password의 약자로 금융거래 시 필요한 비밀번호를 생성하는 기기입니다. 거래마다 비밀번호가 변경되며 보안카드와 달리 한 개의 OTP로 모든 은행 금융거래에 사용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기존의 OTP는 화면에 숫자가 나와 시각장애인의 사용이 어려웠으나 이번에 제작된 음성 OTP는 이어폰을 연결하여 음성으로 일회용 비밀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성 OTP는 지난 6월 19일 체결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금융감독원간의 업무협약 후 금융감독원이 시각장애인의 일반 OTP 사용에 대한 불편사항을 접수하여 제작된 것입니다. 또한 음성 OTP를 제조한 제조사 미래테크놀러지는 시각장애인의 전자금융서비스 이용불편 해소를 위해 음성 OTP 2,000개를 무상으로 기부했습니다.

이러한 음성 OTP 배포를 맞아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금융감독원은 11월 19일 이룸센터에서 음성 OTP 시연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 오순명 처장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업무협약을 맺으면서 시각장애인의 OTP 사용이 어려움을 듣고 음성 OTP를 제작하게 됐다. 앞으로도 시각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시각장애인의 쉽고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음성 OTP 시연행사에서는 시각장애인 조현영 씨가 음성 OTP를 사용해 실제 인터넷뱅킹 금융거래를 시연했으며 행사에 참가한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금융거래 시 꼭 알아야 할 금융지식’이라는 강의를 이어졌습니다.





## 음악치료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열린음악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지난 12월 5일 서울특별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는 열린 음악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복지관에서는 시각장애인, 장애아동, 장애아동부모를 대상으로 음악치료, 악기 레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음악치료, 악기 레슨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시각장애인, 장애아동, 장애아동부모님 이 그동안 갖고 닦은 실력을 음악회에서 뽐내 주셨습니다.



##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시각장애인 취업자를 위한 송년회 열려

연말이 되면서 곳곳에서 한 해를 되돌아보는 송년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서울특별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노력해주신 봉사자 분들, 복지관을 통해 취업하신 시각장애인 취업자를 위해 송년회를 개최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봉사해주신 봉사자 분들, 시각장애의 어려움을 딛고 자립을 위해 애쓰신 취업자 분들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 자라섬 여행기

서해웅 (시각장애 1급 / 서울시 은평구)

버스는 예정보다 30분 정도 늦게 출발했다. 복지관 직원들은 어땠는지 모르지만 나는 내심으로 이미 짐작한 대로였다. 10시에 모이기로 해서 10시 30분에 출발했다면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다. 시각장애인들이 특별히 약속 시간을 못 지킨다거나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낯선 곳을 찾아가는 데는 아무래도 장애유무를 떠나 시간이 걸리기 마련이고 늘 여행이란 예정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마련인 것이다. 그게 여행의 맛이기도 하기에 제 시간에 온 나는 기다리는 시간이 그다지 지루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친구는 나를 버스에 태워주고 나서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직장으로 갔다. 같이 자라섬에 가자고 거의 한 달 전에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친구의 회사는 이를 전에 주말 근무를 요청했다. 요청인지 명령인지 뭐 다를 것은 없었다. 아쉬움을 뒤로 하고 나는 잠시 망설임 수밖에 없었다. 10만 명이 넘게 찾는다든 자라섬에 보조인 없이 간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 친구가 내게 미안해하기도 하고 걱정을 하기도 하며 또 자신도 아쉬워하면서 나를 버스에 올려주고 갔을 때 약간의 불안함과 적적함이 안개처럼 나를 감쌌다.

여행은 예기치 못한 상황을 불러오는 이상한 힘이 있다. 점심을 먹기 위해 버스에서 내려 약시자 분을 기다리고 있는데 한 봉사자분이 선뜻 나를 돕겠다고 나서 주었다.

점심을 먹고 수목원에 들렀다.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며 봉사자 분은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었다. 참 재미있는 친구라는 생각이 들어 점차 서로 개인적인 이야기도 하게 되었다. 나이며 직장이며 출신 학교며 학창 시절 이야기도 서로 나누며 공감하기도 하고 질문을 주고받기도 했다. 금세 친해져서 서로 장난도 치고 진지한 이야기도 나누었다. 외국계 회사에 근무하는 봉사자 분은 몇 년 전에도 봉사활동차 자라섬에 와보았노라 말했다. 그때보다 몇 배나 규모가 커진 것 같으며 놀라워하기도 했다. 그때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재즈 페스티벌을 안내하는 역할이었다고 했다. 고등학교 시절 홍콩에서 지내다 와서 영어에는 능숙했고 해외 출장도 자주 다니다 보니 외국인을 상대하는 것에 거리낌이 없다고 했다. 나와는 다른 환경에 살고 있는 사람을 만나 이렇게 진솔한 이야기를 나

눌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기만 했다. 더불어 서로 직장 생활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무래도 사회 초년생이다 보니 조직생활의 어려움이나 미래에 대한 걱정 등에 대해 많은 공감을 했다.

혹시 내년에 자라섬에 가게 된다면 반드시 두터운 패딩을 챙겨가야겠다고 다짐할 만큼 자라섬은 추웠다. 추위도 엄청 추웠다. 넓은 잔디밭에 앉아 돛자리를 깔고 덜덜 떨면서 재즈를 들었다. 음악은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해서 잘 왔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날씨는 정말 추웠다. 봉사자분이 가방에서 목도리를 꺼내 주었다. 이 목도리가 아니었다면 나는 아마 감기에 걸렸을 것이다. 복지관에서 두꺼운 옷을 챙겨 오라는 문자를 받기는 했지만 이렇게 한 겨울처럼 추우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재즈를 들으며 피자과 치킨으로 저녁을 대신했다. 어느 새 어두워지고 밤이 되어 분위기는 정말 좋았다. 한참 음악에 빠져 듣고 있는데 돌아갈 시간이 되었다. 축제는 아마 늦은 시간까지 이어질 모양이었다. 아쉬움을 뒤로 하고 자라섬을 나와 서울로 돌아왔다.

나는 만남을 좋아하고 중요하게 생각한다. 어느 한 사람이 누구를 만나고 어떤 느낌을 받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나와 다른 영역에서 지내는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고 알고 싶어 한다. 지금은 비록 시각장애인으로 한정된 시공간안에 살고 있지만 내가 겪어 보지 못한 이야기를 들으며 세상을 좀 더 다른 각도에서 보고 싶다. 순수한 지적 호기심일 수도 있고 사람에 대한 궁금증일 수도 있다. 사람을 만나는 데는 여행만 한 것이 없다고들 하는데 그것은 일반 사람 들한테만 해당되는 말이라고 생각했다. 비록 짧은 시간 이기는 했지만 이번 자라섬 여행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을 접할 수 있었다. 화면해설자, 사회복지사, 자원봉사자 또 다른 분야에서 활동하는 시각장애인까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즐거움에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어쩌면 자라섬에 재즈를 들으러 간 것이라기보다 다른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러 간 것 같았다. 이 글을 쓰며 나는 또 다음 여행을 생각하고 있다.



음악으로 마음을  
따뜻하게 해드립니다!

## 음악치료사 박경순 씨의 이야기



음악 감상을 하면 곡에 따라 정서적, 심리적 안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산부가 음악으로 태교를 하기도 하고 음악을 이용한 심리치료도 이뤄지는데요.

서울특별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는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음악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손으로 보는 세상에서는 음악치료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박경순 음악치료사를 만나 보았습니다.

**Q** 음악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음악치료 프로그램에서는 시각장애아동의 심리적 안정과 발달을 위해 음악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유아부터 고등학생까지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요, 아동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같이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 연주를 하는 등 다양하게 커리큘럼을 구성하게 됩니다. 또한 시각장애아동을 둔 부모님, 성인시각장애인, 시각장애 외 다른 장애 유형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악기 레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Q** 일대일로 음악치료를 하시다면 다양한 아동을 만날 것 같은데요, 가장 인상적인 경우는 언제였나요?

**A** 만 23개월의 시각장애유아를 대상으로 음악치료를 했었는데, 보편적인 23개월의 아이들은 걷기도 하고 조금씩 말도 하는데 이 아이의 경우 시각장애로 인해 다른 발달들도 늦어진 상황이었어요. 처음에 음악치료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는 아이가 울기만 해서 관계형성을 하는 것이 무척 힘들었는데 한 달쯤 지나니 아이도 적응을 해서 같이 멜로디를 흥얼거리고 음악을 즐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 말도 하게 되었고요, 처음 아이와 음악치료를 할 때는 정말 막막했는데 아이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뿌듯한 보람을 느꼈습니다.

**Q** 시각장애아동의 부모, 성인 시각장애인 또는 다른 유형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악기레슨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악기레슨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A** 현재 기타, 가야금, 우쿨렐레, 플룻 네 가지 악기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성인 분들의 경우 그룹으로 레슨을 진행하고 있고요.

**Q** 관심 있는 분들이 음악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서울특별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홈페이지 또는 시각장애인 재활통신망 넓은마음을 통해 공지를 올리기도 하고요, 아니면 전화로 연락을 주시면 상담 후에 프로그램의 참여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02-950-0151로 연락 바랍니다.

**Q** 음악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면서 향후 계획이 있으신가요?

**A** 음악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니 음악에 소질이 있는 시각장애인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악기를 잘 다루시는 시각장애인 분과 악기를 배우고 싶어하는 시각장애아동을 매칭해서 멘토링 수업을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A** 음악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올해 처음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시는 분들과 함께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정말 뿌듯하고 보람찼습니다. 내년, 내후년에는 더 많은 분들과 함께 음악회를 꾸리고 싶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점자교과서는 언제부터 만들어졌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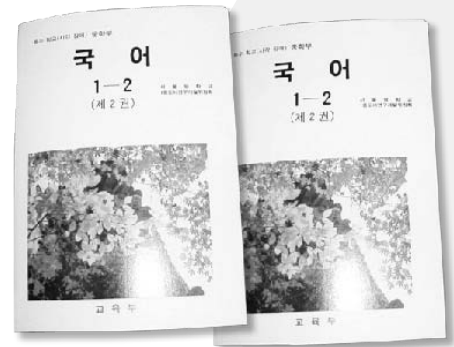
시각장애학생들이 주로 사용하는 점자교과서는 어떠한 역사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번 흰 지팡이 발자취에서는 점자교과서의 역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최초 관립특수학교이자 서울맹학교의 전신인 제생원 맹아부에서는 조선총독부에서 편찬한 교과서를 자체적으로 점역하여 점자교과서를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비장애학생들이 사용하는 교과서를 점역하여 점자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제생원 맹아부에서는 점자제판기와 인쇄기를 구입했습니다. 이때가 1913년이었는데 이 당시 점자제판기는 오늘 날처럼 키를 누르면 자동적으로 점자가 찍히는 것이 아니라 점자키를 누르고 발로 페달을 밟으면 키가 눌러져서 아연판에 점자가 찍히는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인쇄기도 마찬가지로 스위치를 누르면 롤러가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롤러를 일일이 돌려야 인쇄가 된 것이지요. 이처럼 모든 것이 수동이었던 그 당시에는 학생 수에 맞춰 점자교과서를 인쇄하기 어려웠습니다.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면서 중요한 부분을 읽어주면 학생들이 필기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이처럼 제생원 맹아부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방식으로 약 30년 동안 자체적으로 교과서를 점역하여 사용했습니다. 그러던 중 1940년대에는 대부분의 교과서를 일본에서 들여왔는데요, 일본에서 들여온 이료 교과서의 경우에는 교과서를 우리 실정에 맞도록 수정하여 사용했다고 합니다.

광복 직후에는 상황이 어려워져 점자교과서를 출판하기 어려웠습니다. 선생님들이 수업시간에 교과서의 중요한 내용을 불러주면 시각장애학생들이 점자판으로 받아 적어서 공부했습니다. 또한 중학교 영어 교과서의 경우 선생님이 수업 진도 나갈 부분을 미리 점역하여 학생들에게 주면 학생들끼리 돌려가며 사용하기도 하였고 선배들의 책을 물려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다음 학기에 배울 책을 방학 동안 미리 점자로 찍어 봤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시각장애학생들을 위해 매년 발행되는 점자교과서는 몇 권일까요? 2000년대 이전에는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에 이어 이료교과서까지 매년 32,000권의 점자교과서를 출판하여 전국의 시각장애학생들에게 공급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각 맹학교에서는 사용한 점자교과서 중 상태가 좋은 교과서를 골라 다음 학년의 학생들이 사용하도록 하고, 저시력 학생에게는 큰 문자 교과서를 공급하면서 2008년 기준으로 약 26,000여 권의 점자교과서를 출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한국 시각장애인의 역사 (임안수, 2010년)」,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발체

# 세계시각장애인연합회 아시아태평양지역 (World Blind Union – Asia Pacific) 총회가 실시되었습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세계시각장애인연합회 아시아태평양지역  
총회에 참석했습니다. 지난 11월 21일부터  
24일까지 홍콩에서 세계시각장애인연합회  
아시아태평양지역 총회가 실시됐습니다.



세계시각장애인연합회(World Blind Union)는 전 세계 190여국의 시각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로, 국제연합 UN 산하 경제사회 위원회에 공식적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세계시각장애인 연합회는 시각장애인의 평등권과 기본권을 보장하고 시각장애인의 권익옹호와 국제교류협력을 위해 여러 사업을 기획 및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시각장애인연합회는 전 세계 각 지역의 시각장애인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지역 별로 나뉘어 6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아시아태평양지역인 것입니다.

세계시각장애인연합회 아시아태평양지역 총회에서는 각 지역의 시각장애인들이 직면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개발하고 각국의 정보를 교류했습니다. 아시아태평양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국가별로 각국의 현황에 대해 보고하고 향후 계획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총회에서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여성시각장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포럼이 실시되었습니다. 여성포럼에서는 각국의 여성시각장애인에 대한 교육이 어떻게 실시되고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세계시각장애인연합회 아시아태평양지역 총회에서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시각장애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각 나라의 시각장애인의 권리가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알아보고 특히 시각장애인 교육, 고용 등 다양한 정보에 대해 공유하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 시각장애인이 버스를 이용할 때

시각장애인이 버스를 이용할 때

버스정류장에 도착한 버스의 번호를 알 수가 없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버스정류장에서 시각장애인을 만나면 “몇 번 버스를 타십니까?”하고

먼저 물어봐 주시고, 여유가 되신다면 버스타승을 도와주세요.

### 시각장애인 인식개선 '장애체험스쿨' 프로그램 안내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시각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단체인원을 대상으로 '장애체험스쿨'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장애체험스쿨' 프로그램에서는 시각장애에 대한 교육 및 시각장애 체험을 진행합니다. 참가를 희망하시는 단체가 계신 곳으로 찾아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 자원봉사센터, 도서관 등에서 장애체험스쿨 프로그램을 참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대 상** 초·중·고·대학생 및 사회인

**내 용** 시각장애이해 및 에티켓교육, 한글점자이해, 시각장애체험, 여가·문화체험 등

**진행장소** 신청기관을 방문 하여 진행

**체험시간** 3시간 이내 (봉사활동 확인서 발급가능)

**상담 및 접수** 02-935-9696 박승만

### 후원안내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은 전국 50만 시각장애인의 복리향상과 권리증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시각 장애인 기관입니다. 후원자님의 정성된 사랑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소중한 쓰일 것이며 후원자님의 후원금은 소득세법 제34조, 법인세법 제18조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지로번호** (7608162)

**계좌번호** (예금주: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 우리은행 1006-601-227253